



**뒤쳐지는 양계업, 양계인 마음이 문제
도전의식 약화 현상**

양계업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 모양이다. 닭을 키워 나오는 소득은 늘 흑자였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소득 규모가 결정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매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닭 키워 돈 벌고, 땅값 뛰어 재산이 증가하는, “꿩 먹고 알 먹는 격”으로 비춰지던 때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도 인상은 커녕 더 하락한 곳이 부지기수이고, 닭 키워 얻는 소득도 매년 하락하여 질병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부채가 많은 양계농가들은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과거에도 닭을 키우면 무조건 돈을 모은 것은 아닌 듯 싶다.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오락에 빠지거나, 모 사업인 양계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업쯤(?)으로 앞뒤가 바뀌면 언제든지 양계업도 잘못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양계업이 타 축종에 비해 자꾸만 뒤쳐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낙후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한 계량은 없었지만 우선 사료시장에서 고객 관리를 할 때 보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을까 유추해 본다.

양계업이 한국사료업을 탄생케 하였으나 1970년대 타 축종의 변성으로 이제는 생산액 면에서도 수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결국 양계 사료는 타 축종의 유지에 필요한 원가절감 차원의 가동을 지켜주기에 부합되는 업으로 전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양계업이 분명히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당시를 본다면 양계인의 사기는 충천해 있는 듯 하고, 이 업과 연관된 업체에 우수한 두뇌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컨대 양계업 내부에는 도전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이다. 양계업을 이끌던 고급 두뇌 집단들은 전망이 훨씬 좋은 축종으로 빠져나간지 오래이고, 양계인들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져서 시대변화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바로 도전의식이 약하다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즉, 자기 대(代)에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가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계인들이 닭을 통하여 최고가 되겠다고 중흥무진 누비던 과거의 양계인 수보다 많아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도전심이 미약하여 양계업이 자꾸만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생각이 들고 있다.

양계업이 새로운 경제질서에 강한 양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인위적인 재편은 부작용이 크므로 서서히 의욕있는 양계인들이 양계업의 주체가 되도록 모든 규제와 지원이 그들

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리라고 보여진다.

양계산물 소비홍보에 관심 높일 때 소비확대로 생산기반 키워야

수년간 양계업의 흐름을 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출하가격에 있어 호황과 불황은 반복해서 찾아온다. 물론 생산과 공급, 또는 소비량에 따라 가격은 변동이 있게 마련인데, 근자에 들어 양계업계에서는 양계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홍보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특정 단체에서 소비홍보 행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를 교육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닭고기와 계란을 먹일 수 있는 요리 방법의 개발이나, 기피하는데 따른 설득력 있는 대소비자 교육보다는 아직까지도 이름 알리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다.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열기를 팔기 위해서 전열기로 할 수 있는 요리 즉, 전열기구의 직접적인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 할 기구로 할 수 있는 일감을 직접 알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양계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닭고기와 계란이 좋다는 이미지 부각만으로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왜 좋은지, 좋은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관건이다. 수혜자가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함은 만고의 진리이다. 양계인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돈이 없어 참여를 못한다고 빠지고, 경기가 호전되면 그냥 놔둬도 소비가 잘 되니까 참

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산업의 소비확대는 생산기반의 성장을 의미한다. 설령 수입 양계산물 일부가 덕을 본다 해도 국내산 양계산물의 소비확대는 계속되어야 하고, 점차 유통상인, 수입업자까지 합류시켜 광범위한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을 앞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조금 납부 의무규정이 입법화되기전까지 본회 회원의 회비 징수 때 일정액을 납부토록 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계란 등급제 실시 목적 확실해야 현 규정 모두에 이롭게 개선

소비규모와 생산량으로 보면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은 식품으로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계란은 지금까지 1974년 2월 6일에 본회가 발표한 중량별 등급표에 따라 등급제가 적용되어 온 셈이다.

알가공품을 제외하고는 계란에 대한 품질 또는 중량별 등급 기준이 국가 기관에 의한 관리가 전무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본란을 통해 몇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로 한다. 다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농림부가 밝힌 계란의 중량별 6개 등급, 품질별 4개 등급(안)에 대해 문제점만 지적코자 한다.

우선 중량 등급(안)에 있어 우리나라 계란 유통의 특수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이웃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와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계란 유통이 특란이 근

간을 이루고 있었다면 모르나 불행히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중란에 해당되는 MS와 대란에 해당되는 M이 가장 부가가치가 있는 식란으로 유통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특란이 유통의 핵심을 이룬다해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유통상인, 심지어 가공란을 구매하는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특란 선호도가 높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굳어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아야 한다. 중량을 조정하여 등급간에 일정한 간격을 둔 과학적인 분류는 나무랄데 없으나 문제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이름의 특란 중량이 대폭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등급(안)의 내용은 유통상의 용어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량간 차이를 균등하게 했을 뿐이고, 계획대로 이(안)이 규정으로 확정된다면 현재보다 더 큰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닭의 육종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생산자들은 과거의 특란이 대란으로 유통부분에서 인식될 수밖에 없어 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아예 경란을 없애고 특란을 대란 중량대에 놓고 특란과 왕란 사이에 왕특 혹은 전혀 생소한 이름을 넣어 기존의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특란의 중량폭을 낮춘다면 소비자나 생산자의 이익이 커질 뿐만 아니라 무리한 난중생산으로 산란지수가 감소하는 생산성 저하 현상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무를 옮겨도 심을 땅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조림의 1차 관문이라 했음을 기억하고 중량 등급제 규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양계**